빙상 이어 설상에서도 메달…프리스키 빅에어 윤종현 은메달

빅에어 신영섭도 동메달…피겨 김채연 쇼트프로그램 2위

한국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폐막을 이틀 앞두고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윤종현(단국대)은 12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빅에어 결선에서 169.50점으로 가사무라 라이(일본·183.50점)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1차 시기에서 88.25점을 받아 가사무라(93.5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2차 시기에서도 가사무라(9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81.25점을 받으며 2위를 지켰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신영섭(강원대)은 1차 시기 67.5점에 그쳤으나 2차 시기 77.25점, 3차 시기 88점으로 점차 높은 점수를 따내 입상에 성공했다.

빅에어 경기에선 선수들이 세 차례 연기를 펼쳐 가장 좋은 두 차례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순위를 따진다.

가사무라와 윤종현은 3차 시기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 대회 프리스키 빅에어 경기는 애초 13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현지 날씨 상황으로 팀 리더 미팅과 심판진의 승인을 거쳐 일정이 당겨졌다.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선 김채연(수리고)이 개인 최고점인 71.88점을 받으며 사카모토 가오리(일본·75.03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김채연은 13일에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

함께 출전한 김서영(수리고)은 총점 51.23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인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설예지, 리드 설예은, 핍스 김수지)은 하얼빈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부 예선 라운드로빈에서 카자흐스탄을 8-2로 꺾고 6연승을 달리며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하얼빈체육대학 학생 빙상장에서 열린 여자 본선 풀리그 1차전에서 중국에 1-2로 졌다.

크로스컨트리 여자 4×5㎞ 계주에서는 이의진(부산시체육회), 제상미, 이지예(이상 평창군청), 한다솜(경기도청)이 출전해 57분 14초 4의 기록으로 4위에 자리했다.

중국(53분 59초 3), 카자흐스탄(55분 24초 5), 일본(56분 38초 1)이 이 종목 금, 은,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이준서(단국대), 변지영, 이건용(이상 경기도청), 정종원(부산시체육회)이 출전한 남자 크로스컨트리 대표팀도 4×7.5㎞ 계주에서 4위(1시간 15분 27초 2)에 올랐다.

중국(1시간 12분 09초 6)이 여자부에 이어 우승했고, 일본(1시간 12분 12초 8)과 카자흐스탄(1시간 12분 54초 7)이 뒤를 이었다.

산악스키 혼성 계주에서는 중국 조들이 금, 은, 동메달을 휩쓴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예지-정재원은 7위, 김미진-구교정은 10위로 마쳤다.

/연합뉴스

피겨 김채연이 12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나란히 준결승’ 컬링 18년 만에 남녀 동반 金 보인다

여자 대표팀 6연승 질주·남자 대표팀 조별리그 1위로 준결승 직행

한국 남녀 컬링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18년 만에 동반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은 12일 중국 하얼빈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예선 6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을 꺾고 6연승으로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여자 컬링은 2007년 창춘 대회 이후 18년 만에 대회 정상을 노린다.

스킵 김은지가 이끄는 여자 대표팀(세계 랭킹 9위)은 이번 대회에 나선 팀 중 객관적인 전력이 가장 좋다.

우승 경쟁 상대인 중국(19위), 일본(47위)보다 한 수 위의 전력을 갖췄다.

여자 대표팀은 예선에서 8전 전승을 거둬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 ‘퍼펙트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킵 이재범, 서드 김효준, 세컨드 김은빈, 리드 표정민, 핍스 김진훈이 나서는 남자 컬링 대표팀 의성군청도 조별리그 A조에서 1위를 차지해 준결승에 직행했다.

국내 실업팀 중 막내인 의성군청은 패기로 무장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 들어 연일 완벽한 샷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는 스위스 대표팀 출신으로 구성돼 우승 후보로 꼽힌 필리핀에 6-1 완승을 거두며 파란을 예고했고 파죽지세로 4연승을 거둬 조 1위를 차지했다.

남자 컬링 대표팀도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목표다.

2001~2003년생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엔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도 걸려 있다.

남자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B조 2위 홍콩-A조 3위 카자흐스탄 승자와 맞붙는다.

나란히 준결승에 오른 남녀 컬링 대표팀은 13일 오후 8시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이어 14일 오전 10시엔 18년 만의 아시안게임 동반 우승을 꿈꾼다. /연합뉴스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막…15일간 열전 돌입

42개팀 참가…역대 최다

전남 광양에서 전국 고등학교 최강 축구팀을 가리는 승부의 장이 펼쳐진다.

‘제26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13일부터 27일까지 광양공설운동장, 축구전용1·2구장, 마동1·2축구장, 광영축구장 등 6곳에서 개최된다.

13일 오전 9시40분 축구전용1구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으로 막을 올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가장 많은 42개 팀이 참가를 알렸다.

이번 대회는 11개 조로 나눠 19일까지 조별 예선리그를 치른 후 각 조 1·2위가 본선리그(22강)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너먼트 방식의 본선리그에서는 무승부 시 4강까지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리고, 결승전에서는 연장전(전·후반 각 10분)을 우선 진행한다. 이후에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로 최종 우승팀을 결정한다.

광주·전남 소속의 고교 축구팀도 우승컵에 도전한다.

전국 고등학교 최강 축구팀을 가리는 ‘제26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13일부터 27일까지 광양공설운동장 등 6곳에서 개최된다. 지난 2024년 대회 모습. 〈광양시체육회 제공〉

지난 2022년 대회 우승팀인 광주FC U18 금호고와 2021년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1위를 차지한 전남드래곤즈 U18 광양제철고, 제56회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준우승을 차지한 영광FC U18 법성고 등 축구 강호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15일 간의 대장정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결승전으로 막을 내린다.

한편, 대회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 ‘광양시청 티비’를 통해 생중계 되며, 경기 결과 및 진행 상황은 광양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연지현이 지난달 12일 열린 삼척시청과의 1라운드 대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삼척 잡고 연패 탈출 할까

오늘 여자부 2라운드 경기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삼척시청을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선다.

광주도시공사는 13일 오후 8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삼척시청과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2일 부산시설공단과의 홈경기에서 31-35로 패한 광주도시공사는 8일 광명에서 열린 경남개발공사와의 맞대결에서도 19-21로 지면서 연패 중이다. 시즌 9경기에서 단 2승 1무 6패(승점 5점)를 기록하며 6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삼척시청은 6승 1무 2패(승점 13점)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삼척시청이 29-26으로 승리한 바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승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책 관리다. 경기 막판 결정적인 실수로 흐름을 내준 경우가 많았던 만큼, 안정적인 경기력이 필요하다.

피봇 수비 보강도 과제다.

오세일 감독은 필드 플레이어 7명을 활용하는 ‘7인 공격’ 전략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전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노마크 찬스에서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피봇 포지션을 맡고 있는 김금순, 박지호, 연지현이 상대 수비를 흔들어줘야 하고, 신예 연지현의 성장도 중요한 요소다.

오세일 감독은 “연지현이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인 무대가 처음이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쉽지 않은 경기이지만 이번 시즌에 활약해왔던 광주도시공사 주요 득점원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올 시즌 9경기 동안 김지현이 50득점(슛 성공률 48.54%), 김수민이 31득점(73.81%), 서아루가 45득점(72.58%) 등을 올리며 활약했다.

여기에 송혜수도 39득점(49.37%), 43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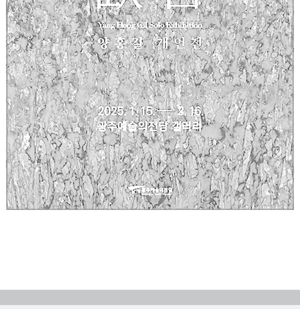
이들이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득점을 올려 분위기를 가져오고 실책없는 경기를 이어가면서 팀의 연패를 끊고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